

## 〈창란호연록(昌蘭好緣錄)〉에 활용된 ‘앵혈(鶯血)모티프’의 기능과 그 의미\*

김태영\*\*

— <차 례> —

1. 서론
2. <창란호연록>에 활용된 ‘앵혈모티프’의 양상
3. <창란호연록>의 ‘앵혈모티프’ 기능과 의미
4. 결론

### 〈국문초록〉

〈창란호연록〉은 남자주인공 ‘장희’와 여자주인공 ‘한난희’가 두 가문의 중심축으로 등장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갈등과 갈등으로 비롯된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짐으로써 인기를 끌었던 조선후기 국문장편소설 작품 중 하나이다. 작품에 대한 개괄적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창란호연록>과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문장편소설들과 함께 비교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작품에 활용된 모티프를 통해 서사의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고찰해 보는 작업은 아직 미진한 편이다.

여기에서는 작품에 활용된 다양한 모티프들 중에서도 ‘앵혈모티프’의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창란호연록>에서 ‘앵혈모티프’ 활용은 여주인공의 정절이나 순결을 부각하여 드러내는 효과 보다는 남녀 주인공 및 인물 간 갈등양상을 창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본래 ‘앵혈’이 지닌 기능에서 보다 확대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작품 속 ‘앵혈모티프’ 활용에 주목해 봄으로써 앵혈모티프의 활용이 발생시키는 효과를 살피고, 그 의미를 밝혀보는 것을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목적으로 한다.

국문장편소설의 서사에서 ‘앵혈’의 활용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앵혈’은 작중 여성인물의 가문이나 생년, 정혼사실, 순결, 성적 박대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창란호연록>에서는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앵혈로 딸의 팔에 정혼자 이름을 써놓는 것으로 ‘앵혈모티프’를 삽입시킨다.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창란호연록> ‘앵혈모티프’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앵혈로 미리 정혼자의 정보를 적어 정해왔다는 사실이 여주인공의 정절표식과 겹치게 되면서 순결의 의미 뿐 아니라 강제 정혼이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시각화 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앵혈모티프의 활용이 남주인공의 ‘여복개착’이나 사위의 장인 놀리기가 드러내는 ‘옹서갈등’과 같은 다른 모티프와 결합하여 가문과 가문이 맺어짐으로써 새롭게 형성된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창란호연록>의 서사구조 속에 ‘앵혈모티프’가 삽입됨으로써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건이나 모티프활용의 기능 및 의의 등을 고찰하는 것은 <창란호연록>이라는 작품이 지닌 변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강제정혼이 불러올 수 있는 가문간의 갈등을 ‘앵혈모티프’와 함께 풀어냄으로써 시대를 관통하고 있던 규범의 이면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창란호연록, 앵혈모티프, 강제정혼, 가부장권력, 여복개착모티프, 부부갈등, 옹서갈등모티프

## 1. 서론

<창란호연록>은 남주인공 ‘장희’와 여주인공 ‘한난희’가 두 가문의 중심인물로 등장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갈등에서 비롯된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짐으로써 인기를 끌었던 조선 후기 국문장편소설 작품 중 하나이다.<sup>1)</sup> 이 작품의 개괄적인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

져 왔다.<sup>2)</sup> 이러한 연구는 <창란호연록>과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문장편소설들과 함께 비교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으며, 개괄적 연구 외에도 작품의 구조나 주제에 주목하여 인물관계나 인물의 형상화 양상, 갈등의 양상 등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아울러 진행되어 왔다.<sup>3)</sup> 하지만 작품에 활용된 모티프를 통해 보다 세밀히 서사를 고찰해 보는 작업은 아직 미진한 편이다.

작품에 활용된 다양한 모티프 중에서도 <창란호연록>에서 보여주는 '앵혈모티프'의 양상은 여주인공의 정절이나 순결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집중되기보다 남녀 주인공의 갈등 및 가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본래 '앵혈'이 지닌 표식의 기능에서 한층 확대된 양상을 보인다. 그동안 '앵혈'을 중심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데, 주로 '앵혈'의 표면적인 의미와 활용양상에 대해 논의된 경향이 높았다. 최길용은 '앵혈'<sup>4)</sup>이 '앵혈', '비홍', '주표', '홍점'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

- 1) 본고에서는 아세아출판사에서 영인하여 출판한 (『필사본 고전 소설전집』 9권, 10권)에 수록된 <창란호연록>을 중심 이본으로 하여 '앵혈모티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박병완, 「<창란호연록>의 구조와 작자의식」,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5, 3~153쪽; 최길용, 「<창란호연록> 연작연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회, 1992, 309~344쪽; 이상택, 「<창란호연>연구-연경도서관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75, 1993, 165~180쪽.
- 3) 양혜란, 「<창란호연록>에 나타난 응-서, 구-부간 갈등과 사회적 의미」, 『연민학지』 4, 연민학회, 1996, 301~344쪽; 송성욱, 「<옥원재합기연>과 <창란호연록> 비교연구」, 『고소설연구』, 한국고소설학회, 2001, 187~222쪽;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응서대립담연구: 여주인공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277~315쪽; 이지하, 「인물형상화 방식을 통해본 <창란호연록>의 통속성」, 『한국문화』 34,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4, 43~69쪽;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창란호연록>·<옥원재합기연>·<완월희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3~276쪽; 김정녀, 「<창란호연록>의 背恩-報恩 구조와 지향」,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2015, 255~284쪽; 김정녀, 「<창란호연록>의 문제적 인물과 혐오의 시선들」, 『한국학연구』 5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139~168쪽.

어 고전소설 작품에 활용되어 왔으며 기본적으로 작중 여성인물의 정절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표식이 되면서도 가문이나 생년, 정혼사실, 성적 박대 등 다양한 양상으로 활용하여 보여줄 수 있는 지점에 대해 고찰하였다.<sup>5)</sup> 김혜자는 조선의 고소설에 활용된 ‘앵혈’ 모티프와 중국 소설에 활용된 ‘앵혈’ 모티프를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sup>6)</sup> 작품의 전체구성 안에서 ‘앵혈’의 형상화 방식을 언급한 논의로는 유광수<sup>7)</sup>, 허순우<sup>8)</sup>, 최수현<sup>9)</sup> 등이 있다. 이들의 논의에서는 조선후기 국문 장편소설 작품이 갖는 여러 특성들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렇듯 ‘앵혈’은 개념이나 형상화 양상을 주목하거나 국문장편소설 작품 안에서 삽입된 여러 요소들과 아울러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창란호연록>에서는 다른 국문 장편소설과는 달리 ‘앵혈모티프’가 애정갈등서사의 중심축으로 활용됨으로써 흥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남녀주인공이 처한 현실과 인식사이에서 대별지점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 독특하다. 그러므로 <창란호연록>의 ‘앵혈’을 주목하여 기능을 살펴보는 것은 다층적인 시각에서 서사갈등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창란호연록>의 남녀주인공을 중심으로 활용

- 
-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앵혈(鶯血)은 여자의 팔에 피꼬리 피로 문신한 자국을 뜻한다. 성교를 하면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여 처녀의 징표로 여겼다고 한다.
- 5) 최길용, 「고소설에 나타나는 앵혈화소의 서사실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41~84쪽.
- 6) 김혜자, 「조중 고소설에 나타난 “앵혈” 및 “수궁사” 모티브에 관한 연구」, 『중국조선어문』 174,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2011, 18~22쪽.
- 7) 유광수, 「<옥루몽>에 나타난 성애(性愛) 표현의 의미 - 은밀한 폭력과 정당화된 폭력 -」,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137~178쪽.
- 8)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의 <소현성록> 연작 수용 양상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319~353쪽.
- 9) 최수현,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실행(失行)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33, 한국여성문화회, 2014, 1~40쪽.

된 '앵혈모티프'의 기능을 살펴보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밝혀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란호연록>은 남녀주인공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에 등장하는 남녀 인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도 비중을 두고 서사를 전개시킨다. 가문의 존속이나 시대규범을 기반으로 둔 서사전개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각각의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내적 갈등으로 인한 인물들의 심리묘사에도 초점을 맞추어 서사가 세밀하게 전개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작품의 서사 속에 '앵혈모티프'가 삽입됨으로써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건 및 감정선의 확대를 고찰하는 것은 <창란호연록>이 지닌 변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주인공 '장희'와 여주인공 '한난희'의 관계를 중심으로 활용된 '앵혈모티프'를 살펴봄으로써 작품에서 발생하는 기능 및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 2. <창란호연록>에 활용된 '앵혈모티프'의 양상

<창란호연록>은 장씨 가문과 한씨 두 가문이 중심축을 이루어 서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장씨 가문의 가부장인 장두는 아들 '장희'와 '장우', 딸 '장난희'를 두고 있다. 한씨 가문의 경우 가부장은 한제이며 아들은 '한창영', 딸은 '한난희(한현희)'이다.<sup>10)</sup> 작품의 전반부에서부터 주목되는 사건은 한제가 장두와의 친한 교우관계를 이유로 일방적인 정혼관계를 맺었다는 것인데, 장가와 한가 두 가문이 깊은 친분을 교류하고 있다가 자

10) <창란호연록>에 등장하는 한제의 딸이자 여주인공 '한난희'는 다른 이본에서 '한현희'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한 『필사본 고전 소설전집』 9권, 10권에 사용된 '한난희'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식들의 혼인시기에 맞추어 매과를 보냈다거나 두 가문의 발전을 위해 계획적으로 맺은 정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sup>11)</sup>

또한 조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장두의 도움으로 한제는 어렵사리 조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적인 힘을 얻긴 했지만, 장두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세력을 지닌 존재였으며 가문의 힘 역시 미약했다. 그러므로 장두와 한제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많은 공적을 쌓고 세력이 비슷한 두 별열가문에서 남녀주인공의 부모가 합의하에 맺게 되는 정혼관계 양상과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된다. 조정의 신임을 받던 장두의 가문에 욕심을 낸 한제는 자신의 딸을 장씨 가문에 시집보내려는 결심을 품고, 이후 장두의 집에 찾아가 개인의 감정만을 내세워 자신의 딸과 정혼 관계를 맺어 줄 것을 조른다. 또한 어린 딸 한난희의 팔에 앵혈로 정혼자의 이름과 가문을 적어놓는 우발적인 사건을 발생시킴으로써 <창란호연록>의 서사 속으로 ‘앵혈모티프’를 대입시킨다.

장두는 한제가 자신의 첫째 아들 장희를 보고 기뻐하며 겨우 3살 난 어린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정혼을 권함으로서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하는 태도를 보고 자식들의 나이어림을 연유로 좀 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성혼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제는 자신의 뜻을 고수하며 자신의 딸을 데려다 앵혈로 정혼사실을 적는 행동을 강행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장희와 한난희는 서로의 존재도 알지 못한 채 정혼으로 서로 묶이게

11) 장공즈를 나오오라 하여 이르되… “네 나히 습세의 네 모친 잇섯씩 한공이 그 딸노 날을 보이고 결혼호를 이르거늘 너 이르되 아직 두아히 강보의 잇스니 조라를 기드려 진진의 조혼 의를 밋고즈 하니 한공이 그 딸의 팔의 잉혈노 장가 며나라라 쓰고 너를 스회라 흐더니, 네 모친이 세상을 바리니 가히 비약지 못홀 일ियो 한공이 굿타여 잉혈노 쓰문 다른 연괴 아니라 우리 집의셔 다른디 혼인하려 흐면 그 딸의 팔을 가져 타문의 못 보너리니 굿하여 너를 동상을 경코져 흐미니 또한 비약지 못홀거시오, 너 안총이 없거나 그 녀아를 보니 미우현영하고 위언이 현철하니 부디 명심하라…”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9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0, 15~16쪽.)

된다. 한제가 정혼을 위해 이용한 '앵혈'은 훗날 남녀주인공이 서로 원수 가문이 되었음에도 혼인을 맺어야 하는 강제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서 남녀주인공이 갈등관계를 맺는 양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여주인공의 팔에 적힌 '앵혈글자'는 한씨 가문과 정혼을 맺은 상대 가문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한제가 딸 한난희와 장희의 정혼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앵혈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혼자의 이름 및 집안을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훗날 정혼자의 존재사실과 내용을 알게 된 장희가 자신의 가문과 아버지를 배신했음에도 앵혈을 사용하여 거부할 수 없는 혼인을 약속해놓은 한제에게 더욱 분통하게 된다. 따라서 장희와 한난희의 정혼에 활용된 '앵혈모티프'는 남녀주인공이 서로 만나기 전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게 만든다. 또한 이로 인해 벌어질 갈등관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서사를 이끌어낸다.

공직 비읍 왈, “딴인 명교 맛당흐시나 한제 우리집 툇산갓튼 은덕을 저브리고 왕진에게 투입흐와 소횡이 불칙 흐오니 엇지 서로 썬 방악의 의를 미즈며 쏘 그 아비 헛된 글 두어즈로 절을 직회릿가.” 장공이 칙 왈, “옛날 숲의 아비 고슈로 덕순의 축하미 텃흐의 뉘 능히 밋츨리오. 만일 한소제 수절헛거든 부디 거두어 종스를 밋들고 아비 적은 허물을 혐의하여 저브리면 녀즈의 오월비상지원을 품게 말느. 너 절식의셔 죽으나 오날날 너 밋을 잊지 말고 거두어 정실을 삼고 그 아들을 장즈를 삼아 아비 속인 죄를 업게하라.” 공직 체읍 슈명 왈, “삼가명교를 밋즈오리다...”<sup>12)</sup>

위에서와 같이 갑작스러운 한제의 배신으로 누명을 쓰고 멀리 귀양을 떠나게 된 아버지에게 한제의 딸을 정실로 삼으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12)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9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0, 16쪽.

받게 된 장희는 배신한 가문의 딸을 정혼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을 통탄해 한다. 하지만 가문을 위한 일이라는 아버지의 완고한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마지못해 수궁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후 장희는 아버지의 권고를 듣고 정혼을 이행할 뿐 정혼자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권고를 남기고 홀연히 떠난 아버지를 잡아가기 위해 찾아온 조정 간신들의 위협을 피해 장희 남매들은 각각 흩어져 헤어지게 된다. 한제 가문과 정혼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한제의 배신으로 아버지를 잃고 집까지 떠나 떠돌게 된 장희는 한제 가문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여복개착으로 자신의 정체를 위장한다. 뿐만 아니라 ‘부운’으로 이름까지 바꾸며 살면서 온갖 고생을 겪는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을 피신해 있던 집의 주인 부탁으로 주인의 딸 대신 한씨 가문의 시비로 우연히 들어가게 된다. 이 일로 ‘부운이 된 장희’는 한난희의 시비로서 위치하게 된다.

장희는 문장을 이해하는 총명한 능력으로 한제의 눈에 들게 되어 한난희의 곁에서 지내는 시비노릇을 하게 된다. 장희는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력을 불린 원수의 가문이자 앵혈로 정약을 맺은 정혼자의 가문에 몰래 침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정혼자 한난희와 신분적으로 상하관계를 맺는 독특한 양상을 빚어내게 된다.<sup>13)</sup> 부운으로 이름을 바꾸고 여장을

13) 디장뵈 여복하고 주인의집 츠환이 되니 엇지 들임직히리오 이러춧 생각히미 흉격이 락힐듯 혼지라. 공지 다른말을 무르니 츠인이 물이쳐 왓, “이곳지 번거하고 쏘 아녀즈의 알비 아니라.” 교즈를 움겨져 한부의 이르니 늘근 비즈 무수이 나와서 의복을 꺾쳐 입히고 한공 뇌외게 편할홀시 공지 눈을 드러 살피니 엇지 습연전 익히보던 한공을 모로리요. 심호의 분기 막힐듯되 당츠시 햏야 우물의 든 고기요, 룡의든 잉무라. 장춧 엇지히리오, 한공이 스심명 시비중의 여덱을 갈희여 소져의게 건시하고 그 남은 비즈들은 상의 시입혀라 하니 공지 여덱중 웃듬이라. 혼공이 나오라햏여 무러왓, “네 이일흠은 무어신다.” 공지 왓, “소첩 일흠은 부운이오...”(김기동 편(1980), 앞의 책, 55~56쪽.)

한 장희는 한난희와 한 공간에 기거하게 되면서 훗날 자신과 혼사를 치르게 될 한난희가 본래 급한 성미와 교만 방자한 성정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크게 실망한다. 또한 앵혈로 맺어진 정혼이라는 이유로 반 강제적인 혼사를 치러야하는 것에 대해 더욱 큰 반감을 갖게 된다.

하루는 열녀전을 읽다가 수심에 잠긴 한난희를 본 시비 계앵이 한난희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앵혈글자보다 아버지의 명이 앞설 것이며, 이미 무너진 장씨 가문과의 혼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니 혼처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음을 염려하는 말을 건넨다. 시비 계앵의 진심어린 염려에도 불구하고 한난희는 계앵의 말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화를 낸다. 또한 금편으로 사정없이 계앵의 온몸을 내리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시비에게도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한난희의 행동을 보고 더욱 거부감을 느낀 장희는 자신과의 혼사를 막기 위해 부운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한난희가 다른 가문으로 혼처를 다시 구할 것을 바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게 된다. 팔에 써진 앵혈은 단순한 글자이며, 공자의 며느리도 개가하였음을 운운하며 한난희가 다른 가문과 혼인할 것을 곁에서 종용하는 모습을 보인다.<sup>14)</sup>

딸의 발언변색한 모습에 놀라 달려온 한제는 폭력을 휘둘렀던 연유를 듣자 앵혈로 맺어진 언약은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며, 장씨 가문의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혼처를 다른 데로 구할 수 있다는 이해타산적인 의견을 낸다. 예전 한제가 미약했던 때 장두와 정혼을 맺을 때와는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 더욱 힘을 얻은 장희는 한

14) 소제 정색 왈 “너는 문즈를 통하는 여자로되 말슴이 이렇듯흐요 나의 팔을 보라 이리  
흐고 타문의 같가 시부냐.” 이의 옥갓튼 팔을 보이니 공직 소제의 절직함만 알고 이  
러듯 세스를 모로미 가소로이 역여 소 왈 “옛날 공즈의 며나리도 기가 흐였시니 저  
글자를 이르리오.” 소제 왈 “스람이 신과 의를 모로면 금수와 일양이라...”(김기동  
편(1980), 앞의 책, 61~62쪽.)

난희 몰래 한제와 공모하여 자신의 정혼자인 한난희를 타문에 혼사시키는 계교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 후 자신을 검탈하려는 사건을 일으킨 한제로 인해 가문 내 사람 모두가 부운이 여장한 남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정체가 남자임이 탄로 난 장희는 한씨 가문을 떠나게 되고 한난희 또한 이일로 크게 상심하고 홀로 앵혈로 적힌 장가와 의언약을 지킬 것을 다짐한 채 가문을 떠난다.

한난희는 가문을 떠나 여기저기 떠돌다 우연히 길에서 부운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와 공모하여 자신을 타문에 보내려 했던 부운의 실체가 사실은 남자이며 자신의 정혼자 장희였음을 알게 된다. 한난희는 ‘앵혈’로 맺은 언약과 신의를 굳게 지키려던 자신에게 회의를 느끼고 죽기 위해 물에 뛰어든다. 이때 물에 뛰어든 한난희의 팔에 적힌 ‘앵혈글자’를 확인하고 구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한제와 앵혈 언약을 맺은 장두이다. 장두는 물에 빠진 한난희의 팔에 새겨진 앵혈글자를 보고 자신의 며느리임을 확신하여 목숨을 구해주며,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며느리에게 감동하여 홀로된 한난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된다.<sup>15)</sup> 여기서 한난희의 팔에 새겨진 ‘앵혈’은 위급상황에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었으며, 시아버지 장두와 재회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이후 ‘앵혈’은 가문으로 돌아간 장희와 혼사를 치른 한난희의 화합의 증거로 작용하게 되면서 혼인이후에도 며느리의 ‘앵혈’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본 장두가 두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개입하여 또 다른 갈등을 빚어내는 양상으로써 활용된다.<sup>16)</sup>

15) 도급하여난 외간남자의 집수후미 잇시나 잉혈이 두렷흔 후는 관겨치 아니코 기회홀 말이 아니니 괴벽히 죽을 마음을 쏘치고 쏘 네 뜻지 세상을 스졸혀니 너 잇는곳지 별유건곤이라. 승도나 다라지 아니하고 정도로 너 양녀 되어 이곳의 잇시미 엇더흐뇨… (김기동 편(1980), 앞의 책, 135쪽.)

16) 김기동 편(1980), 위의 책, 537~538쪽.

위에서와 같이 '앵혈모티프'는 한제가 장두 가문에 대한 부러움과 정혼에 대한 욕망으로 딸의 팔에 글자를 새기는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서사의 곳곳에 활용됨으로써 <창란호연록> 작품의 전반을 이어나가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장씨 가문에 대한 정보와 정혼자의 이름이 적힌 앵혈은 남주인공에게 원수 가문이 되었음에도 혼인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녀주인공의 갈등관계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앵혈모티프'는 여주인공인 한난희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표식이자 정혼자에 대한 신의의 증거로 작용하여 장가와 한가 두 가문이 혼인으로 결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가문의 화합을 중시하는 장두의 꾸준한 개입을 초래시킴으로써 작품 후반부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창란호연록> 서사 전반에 활용된 '앵혈모티프'의 양상을 바탕으로 앵혈의 기능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기능 및 의의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 3. <창란호연록>의 '앵혈모티프' 기능과 의미

<창란호연록>에 나타난 '앵혈모티프'의 양상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 <창란호연록>에서 앵혈의 활용은 남녀 주인공의 관계 뿐 아니라 남녀 주인공과 다른 등장인물들의 관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앵혈'은 서사구조 속에 당대 윤리의식을 삽입하여 강조하려는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등장인물간의 관계양상 및 감정발산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작용을 하게 된다.<sup>17)</sup> 또한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욕구들을 앵혈이라는 소

17) 이지하(2004), 앞의 논문, 54쪽.

제를 활용하여 갈등을 발생시키고 반영하게 함으로써 <창란호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각의 인물이 지닌 본연적 기질에 따라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강해진다.

서사 속에서 적절한 모티프의 활용은 등장인물들의 관계 안에서 여러 사건을 발생시키며 감정선을 확대시키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앵혈모티프’의 활용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 <창란호연록>에서는 혼전순결이나 정절문제에 따른 시대적 윤리의식을 강조하거나 그러내기 위해 ‘앵혈’ 모티프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앵혈모티프’가 오히려 등장인물들의 정절의식이나 강제혼사에 대한 반발적인 감정을 적절히 분출 하게 해주는 통로로 기능하게 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작품의 구조에 드러난 ‘앵혈모티프’의 기능 및 역할을 확인해 봄으로써, 이것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 1) 여복개착 모티프와의 결합과 남녀 주인공의 갈등 확대

앞장의 <창란호연록>에 나타난 ‘앵혈모티프’ 활용양상에서 확인해 보았듯, 장희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최후의 선택으로 여복으로 개착한 채 지내게 된다. 피신해있는 동안 남자임이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제의 집에 거처하는 시비로 우연히 들어갈 수 있게 되며 앵혈로 맺어진 여주인공과의 관계가 여복개착이라는 성별적인 관계로 확장된다. 이때 장희는 정혼자 한난희와 한방에서 함께 기거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됨으로써 미래에 부부가 될 이들이 당대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가능한 혼전동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정혼자 장희’나 ‘정혼자 한난희’로 만나기 전부터 같은 성별을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겪게 된다. 장희는 이를 연유로 보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자신의 정혼자를 관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한난희는 자신의 앵혈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장희와 미리 결정된 정혼과 정절을 지키려는 태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신의를 드러내고 있으나, 시비나 자신보다 낮은 신분에 위치한 인물들에게는 표독스럽고 공격적인 성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이중적인 태도를 자행한다. 장희는 시비로 변장한 자신을 무시하며, 오만한 태도와 패악질을 저지르는 한난희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 모습에 차악한다. 이후 어떻게 해서든 서로의 정혼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벌인다.<sup>18)</sup> 여자의 옷으로 변복하고 은신한 덕분에 장희는 그 누구에게도 존재를 들키지 않고 한난희의 곁에 존재할 수 있었으며, 정혼자의 성격적 결함을 미리 발견하고 혼사를 완강히 거부하게 되면서 한난희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만일 남녀주인공의 정혼이 부모님 사이의 구두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거나 빙물을 나누어 가진 정혼이었을 경우, 남주인공의 아버지가 정혼자의 가문에 의해 누명을 쓰고 가족들이 각기 흩어진 상태에서 이들의 목숨 또한 온전할지 모르는 상황뿐이었다면 장희는 굳이 자신의 정혼을 깨뜨리기 위한 계교를 따로 세워서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가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혼사의 진행여부를 맡기고, 각기 흩어진 가족들과 재회한 이후를 생각하더라도, 원수의 가문이 된 만큼 반드시 정혼을 성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더불어 남주인공이 여복개착으로 원수의 집안에 우연히 침

---

18) “소녀 분디 취가하기를 원치 아니하거늘 디인이 이런말씀으로 소녀의 마음을 요란케 하시니 스라시미 죽기만 못하니아다.” 머리를 두다려 칠보를 다 쓰더 썩여버리고 옥면의 누슈 산산하니... 장심이 즈경을 보미 한공의 무식함과 부인의 형상업슨 거동과 한세의 표독혼 승이 철골흔를 보미 심흔의 실노흔여 생긱하되 ‘가히 일닐 계집이로다. 엇지 하면 저 여자로 타문의 도라가게 할고’ 의식 이의 밋츠미... (김기동 편 (1980), 앞의 책, 66~67쪽.)

입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은 만큼 원수에게 가문의 복수를 하는데 무게를 둔 사건들이 전개됐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가문 및 신변이 적힌 앵혈이 존재하는 이상 장희는 한난희와의 정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여복개착으로 정혼자와 한방에서 지내게 된 장희는 한난희의 본래 파악한 성품을 미리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혼을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해서는 원수인 한제에게 복수하는 것은 미루어 두고서라도 동맹을 맺는 척을 하여 한난희를 다른 가문으로 시집보낼 수 있도록 계교를 모의해야 했던 것이다.<sup>19)</sup> 이후 아버지와 시비가 작당하여 자신을 타문으로 보내려는 사실을 알게 된 한난희가 분노하여 장희에게 서진(書鎭)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제차 행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아 복구하기 어려운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또한 여복개착을 했던 시비 부운의 정체가 장희였다는 사실을 파악한 한난희가 지속적인 반감의 표출로 두 사람이 마찰을 갖게 되면서 두 주인공 사이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다.

장희는 여복개착이라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한난희의 곁에 머무르며 정혼자의 본 성정을 파악할 수 있었던 반면, 한난희는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시비 부운이 여복개착을 한 장희라는 사실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된다. 또한 장희의 본성을 파악할 겨를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장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될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난희에 팔에 ‘앵혈’로 쓰인 정혼에 대한 기록은 신의로 맺어진 신성한 관계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된 남녀주인공을 옹아매는 불행한 족쇄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앵혈’은 정절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써 기능하는 것이 아닌 남녀주인공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심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순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앵혈’은 다른 고

19) 한길연(2005), 앞의 논문, 70쪽.

전소설 작품에서 기본적으로 순결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요소로 활용된다.<sup>20)</sup>

하지만 <창란호연록>에서 '앵혈'이라는 모티프의 활용은 한씨가문과 장씨가문의 혼인을 강제하고 혼인을 맺은 가문에 복속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며, 서사에 배치된 다양한 갈등 사이에서 핵심적인 서사의 요소로 개입시키면서 문면에 드러내고자 했던 혼인의 문제점들을 앵혈이라는 요소에 숨겨 서사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때문에 앵혈이라는 매개로 삼입된 갈등의 화소는 가문의 번영을 우위에 두고 서술하는 국문장편소설의 서사에 아울러 결합하게 되면서 여주인공의 '순결'이나 남주인공의 '순결'에 대한 표식으로 활용했던 앵혈의 양상과는 또 다른 다각적인 의미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장희는 부운으로 이름을 바꾸고 여복으로 개작하였지만 여자와 똑같이 행동하지는 못했다. 여자처럼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여자는 잘 모르는 글을 통하고 문자를 이해하는 영특함을 가지고 있어 한난희는 이러한 점을 매우 기특히 여겨 자신의 가까이에 두었던 것이다.<sup>21)</sup> 때문에 부운이 자신

---

20) <유씨삼대록>의 경우 기본적으로 여성의 정절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앵혈'을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락하지 못하는 부부 유세필과 박소저의 관계 속에 활용된 '앵혈'은 정절 확인이라는 정보성을 극대화 하여 보여줌으로써 갈등을 소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세필은 부인 박소저가 아버지를 따라 길을 나섰다가 밖에서 고초를 겪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외대하면서 부인을 믿지 않았는데, 부인의 팔에 단사가 찍혀있는 것을 우연히 보고 오해를 풀며 냉담했던 마음을 한순간에 눈 녹듯 풀게 되는 면모를 보인다. <유씨삼대록>에서도 앵혈은 여성인물들의 정절을 확인시켜주는 요소로 활용되고 동시에 부부갈등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국립중앙도서관본, 『유씨삼대록』 7권, 36~37쪽.)

21) 제 hing실은 비록 저러하니 남녀유별하니 누hing 돌리의 갖가이 잇슬비 아니라. 엇지 절박지 아니리요, 이러툃 싱각하여 손을 쪼즈 췌시니 소계 문왈 “네 거동을 보니 여공지스는 모로난가 시부니, 능히 셔스를 하난다.” 공지 답왈 “약간 문즈를 hing 엇지 무르시를 당하리오.” 소계 왈 “여러 시여잇스나 지식이 용열하니 소건의 합지 못하더니 너를 보니 처음으로 만나 스랑허온 뜻지 ding하니 상하의 잇셔 셔스를 가음알미

의 곁에서 다른 가문에 혼사를 두라는 조언을 하더라도 시비가 물정을 모르고 함부로 뱉은 말과는 다르게 여겼으며,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계영과의 사건과는 달리 호되게 질책을 하는 선에 그침으로써 부운과의 관계에서는 큰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곁에 두고 아끼던 시비 부운이 사실은 성별을 숨기고 여복개착을 한 남성이며 어릴적 아버지가 기록한 ‘앵혈’로 맺어진 정혼자 ‘장희’였다는 정체를 알고 난 후에는 여장을 한 장희가 자신을 다른 가문에 혼인시키기 위해 혼수를 두었다는 점이나, 계교를 짜고 아버지 한제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전과 달리 한난희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을 제공하고 갈등 요소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앵혈로 맺어진 정혼자임을 알고도 시비로 변장하여 함부로 농락하고 앵혈로 기록한 신성한 정혼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는 장희의 태도는 지속적으로 한난희에게 수치스러운 기억을 제공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개선의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장희의 ‘여복개착’은 한제의 집안에 시비로 들어가 한난희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필연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차적인 사건은 한제와의 모의나 한난희의 폭력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해 남녀갈등을 확장시킨다. 또한 ‘앵혈’은 장희와 한난희가 서로의 존재를 파악하기 전부터 부정적 감정을 촉발시켰으며 서로의 존재를 파악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갈등으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끔 촉발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창란호연록>에서 장희와 한난희가 ‘앵혈’로 맺어진 강제 혼인을 이유로 이들의 부부갈등을 지속적으로 문면에 그려내고 있으면서도 이면에는 남북한 장소저를 숨겨주는 한창영의 모습이나 후처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장소저를 구하고 장소저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아버지 한제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는

엇더호뇨...” (김기동 편(1980), 앞의 책, 57~58쪽.)

이념적인 인물을 배치에 놓음으로써 한난희 및 장희와 대조시킨다. 이때 '앵혈모티프'는 '여복개작모티프'와 결합됨으로써 기존의 이념을 넘어 남녀주인공의 갈등을 보다 확장시키는 기능을 할뿐더러 톱진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가문 내 질서유지를 핵심축으로 삼는 국문장편소설의 주된 형식을 보다 다채롭게 구성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2) 응서갈등모티프와의 결합과 갈등유형의 교차

앵혈로 인한 정혼 약속 이후 <창란호연록>에서 가장 불미스러운 관계를 초래하게 되는 인물은 바로 정혼자 한난희의 아버지이자 장희의 장인인 '한제'이다. 한제는 죽마고우인 장두와 자식 간의 혼사약속을 진행하고 두 가문 사이의 인연을 강조하는 듯 보였으나 장두가 간신의 계략으로 힘을 잃고 자식들마저 각지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딸을 다시 다른 명문가로 시집을 보내기 위해 장두 가문과 맺었던 앵혈의 기록을 저버리고 다른 가문과 혼사약속을 감행하는 변덕스러운 특성을 보이게 된다.

한편 자신의 집안을 배신하고 은혜를 기만한 한제의 집안에 사위가 될 마음이 더 이상 없었던 장희는 아버지가 유배 길에 오르면서 한난희와 앵혈로 맺은 정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를 당부했음에도 한제에 대한 분노로 약속을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사시킨 것과 다름없는 두 사람의 정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또한 시비가 되어 한제의 집에 기거하며 직접 겪은 한제는 욕심 많고 추비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장희로 하여금 정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더욱 촉발시킨다.<sup>22)</sup>

따라서 장희는 장인인 한제에게 가문을 융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22) 김정녀(2015), 앞의 논문, 263쪽.

딸 한난희를 다른 가문으로 출가시킬 계획을 마련하여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한난희와의 혼사과정에 나서서 방해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는 온갖 비굴한 아첨을 하여 본인의 세력을 기르고자 하는 한제의 성격이 반영되어 장희의 말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장희와 장인 한제가 겪는 가장 불미스러운 사건과 이에 따른 갈등의 촉발은 바로 한제가 여장을 한 장희에게 사심을 품고 밤에 몰래 찾아가 겁탈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면서 발생한다.<sup>24)</sup> 가뜩이나 일방적으로 앵혈을 이용하여 자신의 딸과 정혼관계를 맺어놓고는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여 가문을 무너뜨리고, 다른 가문에 아첨하는 한제의 모습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장희에게 한제의 겁탈행위는 자신의 정혼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양상을 포기하고서라도 전면으로 맞서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장희는 장인을 기등에 결박하여 망신을 주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겁탈하려던 한제의 행위에 복수하게 된다. 한제의 행위는 가문의 번영이나 세력 확장을 위한 대외적 영역에 얽힌 갈등이 아닌 인간 본연이 지닌 성적 욕망에 따라 빚어진 갈등이므로 더욱 현실적이고 노골적으로 응서갈등을 표면화시킨다. 그러므로 앵혈모티프를 활용하여 맺어진 가족

23) 한길연(2003), 앞의 논문, 297쪽.

24) 전전하다가 잠이 깊히 드러더니 츄시 한공이 부운의 괴묘한 주식을 흠모하여 락일 유렵호되 쌀을 쓰려 싱의치 못하더니 이날 너치므로 일번 다형호여 옷을 벗고 격신으로 부운의 즈는 방의 가마니 나아가니 부운이 바야호로 첫잠이 깊히드러 스투드러오를 씨닷지 못하거늘... 늘근 한제의 간장이 춘설갓치 녹으니 엇지 참으리오 부지불각의 다라드러 옷을 벗기니 일디 남지라 공이 실식디경호여 디로즐왈 “네 엇던 놀이완디 지상가 규방의 녀복을 기축하고 왔노뇨...” 눈에 불이나게 치며 소리호거늘 장신이 잠결의 놀나 이 광경을 당호니 통한호물 이기지 못하되... (김기동 편 (1980), 앞의 책, 77~78쪽.)

관계가 장인 한제와 사위 장희의 관계에서 특히 그릇된 욕망으로 벌어지는 갈등을 면밀하게 포착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sup>25)</sup> 장희의 정혼 관계 형성으로 말미암은 옹서갈등은 죽은 줄만 알았던 가족들과 어렵게 재회하게 되었음에도 가족의 재회라는 기쁨을 순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부자간의 갈등을 촉발하여 아버지와의 팽팽한 긴장과 불화의 감정을 확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렇듯 장희와 한난희의 정혼을 중심으로 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창란호연록>의 등장인물들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이들이 맺고 있는 갈등의 양상은 단순히 남성주인공 장희로 존재할 때보다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인물간의 갈등이 서로 연계를 맺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아버지-아들로, 형-동생으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장씨 가문의 가족관계 구도에 남편-아내, 장인-사위, 여성-남성, 상-하라는 성별적, 신분적, 제도적 요소가 개입되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sup>26)</sup> 요소들의 개입으로 비롯된 갈등의 유형은 지속적으로 교차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면서 단순한 화소의 활용에서 더 나아가 서사전반에서 박진감과 긴장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희와 대립관계를 맺고 있는 장인 한제와 부인 한난희의 경우 부운이 된 장희를 통해 이면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장희가 여성으로 변복하여 한 공간에 기거하지 않았다면 드러내지 못했을 지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창란호연록>과 비슷한 예로 어려서 정혼을 맺었다가 분리나 고난을 겪은 남녀주인공이 다시 만나 '앵혈'로 새겨진 정혼사실의 기록을 확인하고 숙연을 성취하는 고소설 작품으로는 <옥원 재합기연>의 경우나 <명주보월빙>같은 작품등을 예로 들 수 있다.<sup>27)</sup> 하

25) 이지하(2004), 앞의 논문, 51쪽.

26) 양혜란(1996), 앞의 논문, 333쪽.

지만 이 작품들에서는 앵혈로 쓰인 정혼사실이 분리되었던 남녀 주인공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되어 있으며 앵혈로 인한 응서갈등이라든지 부부갈등이라는 요소로 확장된 양상은 조성되지 않는다.

<현씨양옹쌍린기>의 경우 부부 관계의 소원함을 ‘앵혈’을 활용하여 나타내기도 하고, 주소저의 성정으로 인해 남주인공 현경문이 장인과 갈등을 맺는 상황들이 조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앵혈’모티프와 ‘응서갈등’모티프는 각각 분리된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현경문의 사촌형들이 등장하여 부인 주소저와 현경문의 합방 여부를 확인하고 사촌동생을 놀려주기 위해 현경문의 팔에 몰래 앵혈을 묻히는 사건을 발생시킴으로써 앵혈모티프를 등장시킨다.

이를 통해 겉으로는 누구보다 군자인척 하지만 장인과의 갈등을 이유로 부인과는 화락하지 않는 현경문의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내 준다. 또한 현경문과 장인의 갈등은 서사 내에서 현경문의 넓지 못한 성정을 짚어주는 하나의 돌발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된다. <현씨양옹쌍린기>에 활용된 ‘앵혈’이나 ‘응서갈등’은 남주인공의 성격과 여주인공과의 불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창란호연록>의 경우와 같이 주인공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요소로 삽입된 것이 아니다.

작품에서 ‘앵혈모티프’나 ‘응서갈등모티프’의 결합적 활용은 혼전 순결이나 정혼자 찾기에 집중하는 다른 고전소설 작품들에서 더 나아가 신분간, 세대간, 성별간의 갈등유형을 교차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기능을 하는 지점들을 담아낸다. 아울러 배우자를 스스로 탐색할 수 없었던 당대의 시대현실을 반영하거나 주인공들의 내면적인 감정을 세밀하게 드러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때문에 앵혈화소 활용양상에 있어 <창란호연록>은 다른 작품들과는 차별되는 지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27) 최길용(2010), 앞의 논문, 77쪽.

### 3) 강제정혼의 강행과 가부장권력의 개입

<창란호연록>의 여주인공 한난희의 '앵혈' 또한 혼전순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서사에 활용된 '앵혈'이라는 모티프는 다른 국문장편소설 작품에서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모티프이다. 앵혈모티프를 서사에 삽입시킨 고전소설 작품들은 여성의 혼전 순결 및 신분의 표지로서 다양한 명칭을 활용하여 앵혈을 설정해 놓게 된다. 천민의 신분인 시비에서부터 사대부가의 규수, 재상가의 공주들까지 '순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띤 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신분을 막론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혼전 여성인물이나 혼인 이후에도 성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 여성인물이라면 누구나 이 표지를 갖고 있으며 상징적인 존재로 서술되는 것이다.<sup>28)</sup>

하지만 <창란호연록>에서는 '앵혈'이 혼전순결이라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기능에서 더 나아가 가부장권력이 개입된 강제정혼의 양상을 담아 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한난희가 처한 상황일 경우 '앵혈'이 정혼사실을 증명하는 기록물이라는 표면적 의미는 동일할지라도 여주인공의 아버지인 한제가 혼인장구로 독단적으로 발생시킨 사건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제는 장두의 도움으로 벼슬과 영화를 누리며 살아온 인물이다. 장두의 가문과 관계를 존속시키고자 한제가 선택한 방법은 장두의 아들 장희를 자신의 사위로 삼는

28) 표담하던 임혈그슬 스미의 너코 드러오니 사랑이 잠간 총지 다려 왈 “네 전일 그비 심히 유약하더니 요스이 가장 윤택하여시니 어디 다시 보리라.” 하고 싱 다려 풀을 내라 하니... 당성이 스미 속의 임혈을 호억이 무쳐 싱의 풀히 직으니 홍광이 찬난하고 흰술이 굵게 박히니 총지 대경하여 급히 시스나 더욱 빛늬니 좌위 이 거동을 보고 박장대소하여 일시의 남화위녀하였다 하니...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현씨양음쌍런기 하권』, 국학자료보존회, 1980, 120~121쪽.)

29) 최길용(2010), 앞의 논문, 52~53쪽.

것이였다. 거듭 정혼을 요구했으나 장두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앵혈로 자신의 딸 한난희의 팔에 정혼관계를 기록하는 사건을 발생 시킴으로써 반강제적으로 두 가문을 이어놓는다.

일방적인 혼인의 강행이나, 강제혼인은 늑혼(勒婚)의 양상에서 주로 살펴 볼 수 있는 요소인데 일방적인 혼인의 강행은 권위가 가장 높은 황제의 지시일지라도 혼인을 강요하는 형태를 빚어냄으로 부정적인 부부관계를 조성하게 된다. <유씨삼대록>이나 <천수석>의 경우에도 황제의 늑혼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서 남주인공들이 늑혼으로 맺어진 부인과 화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sup>30)</sup> 하지만 ‘한제’라는 인물만 따로 떼어 놓고 살펴볼 경우 <유씨삼대록>의 황제나 <천수석>의 황제와 같이 강력한 권한을 지닌 권위자도 아니며, ‘장두’의 가문과 정혼을 맺기에는 결점이 많은 인물이다.

한제는 한미한 가문의 출신으로 장두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입신하기 힘든 처지에 위치해 있었다. 한제는 죽마고우이자 평생을 은혜를 갚아야 할 인물인 장두가 몰락의 처지에 놓였다는 이유로 바로 세력가인 왕진에게 붙어 배신을 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한다. 또한 장두의 시신을 고향에 안치하지 못하게 막아 설 정도로 옛 신의와 우정을 모두 쉽게 저버린다.

한제는 현실적 사고와 이익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딸인 한난희의 시비로 뽑아놓은 부운에게 반해 밤늦게 겁탈을 하러 찾아갔다 망신을 당한다. 이렇듯 높은 권위나 위엄이 있는 성격도 아니고, 욕정을 이기지 못해 시비를 겁탈하려는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집안 전체에 수치를 안긴 한제라는 존재는 남녀 주인공의 정혼을 관장하고 언약을 맺는 다른 가문소설 작

30) 장시광, 「고전 대하소설의 남녀결연관련 모티프연구-늑혼모티프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3,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6, 182~183쪽.

품의 위엄 있는 가부장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제’는 집단 윤리로 대표되는 공적인 가치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사적인 자기 자신만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급급한 행태를 보임에도 서사 전반에서 직접적으로 갈등을 겪는 장희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악인으로 형상화 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장가와 한가 두 가문을 아우르는 가부장으로서의 위엄을 갖춘 ‘장두’라는 존재가 가부장의 존재일 뿐 아니라 천상계의 절대적인 힘을 얻은 위치에서 통제의 기능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장두’는 두 가문에 모두 깊숙하게 개입하여 ‘한제’의 부족함을 감싸고 과거의 허물은 덮어주는 역할을 자처한다. 한제가 자신의 아들을 겁탈하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지난날의 서로 맺은 신의와 약속은 지키되 허물은 덮어두자는 장두가 한제를 용서하면서 한제는 자연스럽게 장두의 가문으로, 한가와 장가 가문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한제에 대한 장두의 반응은 아래와 같다.

“시절따라 변환호를 고금의 써썩힌 일이라. 한노 당초의 너 시신을 허치 아니면 나를 미워함이 아니라 천성이 우미하고 겁이 만흔 지라 형혀 날노 결원인줄 알고 긴직의 허회 도라가 종소를 업시코 벼슬을 잘홀가 부득이 소 긴 님이라 무엇이 가칙홀 혐의 잇스리오 가히 형의 칙망은 님군을 위호여 머리을 익정의 맞치고 벼슬 위호여 살을 허호는 스람의 말이로다. 한공이 품슈를 저러케 못호고 그 본성이 너도호니 형이 궁척히 여기미 아니 올호냐.”<sup>31)</sup>

그러므로 지난날 장두와 한제 사이에 맺은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앵혈로 기록된 정혼기록은 본래는 가문을 이끌어 나갈 힘을 지닌 중심세력 가

31) 김기동 편(1980), 앞의 책, 135쪽.

부장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앵혈모티프’의 구조라 하더라도 장두는 한제의 결점을 본래 인간의 본성은 각각 다르며 모두 같을 수 없음을 존중하는 태도로 수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제의 결점 및 일방적인 정혼을 수용하고 있으며 두 가문의 정혼에 개입하여 부드럽지만 강건한 태도를 일관함으로써 남녀주인공의 정혼 및 혼사과정 등을 무산시키지 않는다.<sup>32)</sup>

반면 장두의 성격을 가장 많이 닮아서 태어난 장남이라 할지라도 장희는 일방적인 정혼을 납득하지 못한다. 또한 아버지를 함부로 하고 가문을 위기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여장한 자신을 검탈하려 한 한제의 태도를 용서하지 않으려한다. 장희는 아버지 장두가 한제와 앵혈로 맺어놓은 정혼을 가문의 안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시비가 되었을 때 기회를 잡아 깨트리려 한 것이다. 앞서 앵혈모티프 양상을 통해서도 살펴 보았듯 ‘앵혈’을 언급하는 장희의 태도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한난희가 부운의 정체를 알고 혼사를 거부할 때에도 앵혈의 존재를 ‘신의’로 표현하며 인간으로 응당 지켜야 하는 요소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저 ‘팔에 써진 글자’로 표현하여 언제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주인공의 팔에 써진 글자를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장희와 한난희는 혼사를 치르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앵혈모티프’가 남녀주인공 가문의 불균형을 감안하더라도 혼사를 진행시키는 강력한 도구로써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형의 다스리시를 한하리오. 신심이 지삼 사죄하니 한티우 디왈 “지닌 일은 기괴함이 심하니 한번 웃고 말거시여늘 미양 언규의 울여 파괴를 이리리

32) 이지하(2004), 앞의 논문, 13~14쪽.

오...” 자기 아란체홀 묘리 읍서 진짓 술을 가져오라 햏여 학스를 권햏여 알, “일후는 화기를 거두고 스람을 외디햏가.” 학스 소왈 “너 그디의게 진실 노 너외심이 업스니 엇지 스양햏리오.”<sup>33)</sup>

위에서와 같이 작품의 전반에서 한제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죽음에 처할 위기를 맞은 장두가, 죽음을 대신하여 먼 곳에 피신해 있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각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에 개입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친구이자 정혼으로 아들의 장인이 된 한제가 아들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눈치 채고 둘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할 만큼 장두의 개입은 빈번하다. 또한 앵혈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 한난희 사이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부인과 화락하지 못하는 아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창란호연록>의 서사에서 한제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정혼의 강행과 가부장의 권력을 내세운 장두의 부부관계의 개입은 과거에 발생한 앵혈기록 및 여복개착으로 발발된 부부갈등을 서사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서 미묘하게 빗겨가는 모습을 보인다. 한제와 장두의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문운영 방식은 훗날 자식들의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에도 오히려 서사 속에서 부각되는 것은 ‘앵혈기록’을 사이에 둔 남녀주인공의 참여한 대립이며, 남주인공이 여복으로 개착하여 정혼자와 장인을 곤란에 빠트리는데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위의 <창란호연록>의 ‘앵혈모티프’ 기능에서 살펴보았듯 서사에 활용된 ‘앵혈모티프’는 ‘여복개착모티프’나 ‘옹서갈등모티프’와 같이 다른 모티

33) 김기동 편(1980), 앞의 책, 512~513쪽.

프들과 결합하여 서사 속에서 유동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작품 전체에 녹여낼 갈등의 정도를 조율하거나 심화시키는 확장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서사 속에 ‘앵혈모티프’를 활용함으로써 전면으로는 ‘앵혈’로 인해 발생하는 인물간의 갈등과 사건들을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부분에 앵혈 모티프를 활용함에 따라 작중 갈등관계를 미묘하게 조성하기도 하고,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조율함으로써 시대관습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힘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창란호연록>에서 활용된 ‘앵혈모티프’를 통해 이것의 기능이나 역할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또한 ‘앵혈모티프’의 역할과 의미를 생 각해보는데 중점을 두고 작품을 고찰해 보았다.

<창란호연록>에 활용된 ‘앵혈모티프’는 고전소설 작품에 활용된 여러 모티프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창란호연록>이라는 작품 내에서는 가장 큰 줄거리 축을 담당하는 부부갈등과 응서갈등의 발발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의미를 지녔다. ‘앵혈모티프’를 작품 곳곳에 활용함으로써 발생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앵혈로 미리 정혼자의 정보를 적어 정해냈다는 사실이 여주인공의 정절표식과 겹치게 되면서 순결의 의미 뿐 아니라 강제 정혼이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시각화 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앵혈모티프의 활용이 남주

인공의 '여복개착'이나 사위의 장인 놀리기가 드러내는 '옹서갈등'과 같은 다른 모티프와 결합하여 유동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가문과 가문이 맺어지고 이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앵혈모티프'는 정절의 관념과 강제 정혼으로 맺어진 두 가문간의 미묘한 갈등양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앵혈'은 사건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이에 얽힌 인물들 간의 갈등을 미묘하게 조성하기도 하고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창란호연록>속 '앵혈모티프'의 활용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사 속 모티프의 활용 중에서도 '앵혈모티프' 활용에 대한 논의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갈등 및 서사에 녹여낸 시대의 규범이나 의의들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앵혈모티프'와 아울러 작품에 활용된 여러 모티프들을 함께 살펴본다면 기존의 서사 방식이나 구성에 대한 논의에서 더 확장된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소재적 변별성들을 더욱 면밀히 고찰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기동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제 9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0, 1~730쪽.
- 김기동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제 10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0, 1~737쪽.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유씨삼대록』, 20권 20책.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현씨양응쌍린기 하권』, 국학자료보존회, 1980, 1~545쪽.
- 김정녀, 「〈창란호연록〉의 背恩-報恩 구조와 지향」,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2015, 255~284쪽.
- 김정녀, 「〈창란호연록〉의 문제적 인물과 혐오의 시선들」, 『한국학연구』 5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139~168쪽.
- 김혜자, 「조중 고소설에 나타난 "앵혈" 및 "수궁사" 모티브에 관한 연구」, 『중국조선어문』 174,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2011, 18~22쪽.
- 박병완, 「〈창란호연록〉의 구조와 작자의식」,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5, 3~153쪽.
- 송성욱, 「〈옥원재합기연〉과 〈창란호연록〉 비교연구」,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187~222쪽.
- 양혜란, 「〈창란호연록〉에 나타난 응-서, 구-부간 갈등과 사회적 의미」, 『연민학지』 4, 연민학회, 1996, 301~344쪽.
- 이상택, 「〈창란호연〉연구-연경도서관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75, 1993, 165~180쪽.
- 이지하, 「인물형상화 방식을 통해본 〈창란호연록〉의 통속성」, 『한국문화』 34,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4, 43~69쪽.
- 유광수, 「〈옥루몽〉에 나타난 성애(性愛) 표현의 의미 -은밀한 폭력과 정당화된 폭력-」,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137~178쪽.
- 장시광, 「고전 대하소설의 남녀결연관련 모티프연구-늑혼모티프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3,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6, 173~212쪽.
- 최길용, 「〈창란호연록〉 연작연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회, 1992, 309~344쪽.
- 최길용, 「고소설에 나타나는 앵혈화소의 서사실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41~84쪽.
- 최수현,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실행(失行)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33, 한국여성문학회, 2014, 1~40쪽.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용서대립담연구: 여주인공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277~315쪽.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창란호연록>·<옥원재합기연>·<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76쪽.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의 <소현성록> 연작 수용 양상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319~353쪽.

ABSTRACT

The Shape and Significance of the 'Aenghyeol motif' Used in  
<Changnanhoyeonlok>

Kim, Tae-young

<Changnanhoyeollok> is the leading role of the male and female characters, Jang-hee and Han Nan-hee, who are the head of two families.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Korean novels of the late Joseon Dynasty for its conflicts and various incidents caused by them.

The study's overview of the work was made earlier in the day, which led to its comparison with other late Joseon Dynasty novels of similar type. However, it is still not easy to explore the narrative content in more detail through the motif used in the work. Therefore, among the various styles used in the work,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aspects of the motif shown in 'Aenghyeol'.

The application of 'Aenghyeol motif' here results in more in the conflict between male and female main characters than in displaying their chastity or purity. It is more prominent in function of the original 'Aenghyeol motif'.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ffect of utilizing a motif by paying attention to the use of the 'Aenghyeol motif' and to discover its meaning. The use of 'Aenghyeol motif' in Joseon Dynasty novels is not difficult to examine.

The 'Aenghyeol motif' can show the house of women characters, birth year, arranged marriage, sexual purity and poor treatment. In <Changnanhoyeollok> the heroine's father inserts an impressionist's name in her daughter's arm as an aenghyeol. The effects of the widely-cautioned motif are explained below.

The fact that they have chosen the wed ahead of time is not only symbolic of purity, but also visualized with the heroine's signature, is to visualize the side effects of forced marriage. It also suggests what will

happen like son-in-law's joking on father-in-law.

The bond between family and family suggests that it is also a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the conflict between newly formed relationships. Thus, the singular event resulting from the insertion of an 'Aenghyeol motif' in an epic structure. The function and significance of this can be considered as more effective representations of the distinctive points of the work <Changnanhoyeollok>.

**Key Words** Changnanhoyeollok, aenghyeol motif, forced marriage, patriarchal power, Dress up as a woman motif, conflict between husband and wife, conflict between father-in-law and son-in-law motif

논문투고일	: 2018.12.31
심사완료일	: 2019.02.12
게재확정일	: 2019.02.19